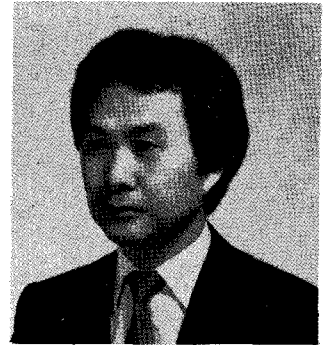


# 축산경영의 규모



정 찬 길

건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농업경제학 박사

## 1. 경영규모란 ?

일반적으로 경영규모에 대한 개념은 농업의 경우에는 작목(作物)에 따라서 서로 다르며 정책적인 입장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본 경영규모 그리고 경영규모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경영규모에 대한 관심과 개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본의 大槻正男교수는 「경영규모는 경영 능력에 결합되어지는 토지(토지면적), 노동력(노동자수), 자본(자본재 자본가액)의 크기를 합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岩片磯雄교수는 「경영활동의 크기를 의미하는 경영규모(size of Farm Business)는 기본적으로는 농업자본의 크기로 표현되는 것이지 결코 농장면적이나 경영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그렇지만 가족경영의 경우는 자본의 크기 내지는 가족노동력수의 이중개념으로 이해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加用信文교수는 「경영규모라는 것은 생산요소중의 고정적요소 즉 노동과정에 있어서 노동수단과 결합하는 개념이며 조업도(操業度)개념은 유동적 요소 즉 노동대상 및 노동력의 투입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응한다」라고 말하였다.

### 축산 경영 · 경제 강좌 목차

- 축산경영의 목적
- 축산경영의 요소
- 축산경영의 형태와 종류
- 축산물 생산비의 구성과 평가방법
- 축산경영 조직
- 축산경영 규모**
- 축산물가격과 시장
- 축산부기 및 회계
- 축산물 유통
- 축산사료의 수급과 가격변동
- 축산경영의 분석과 계획

(계재순서는 변동될 수도 있음)

한편 축산경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육 규모에 의하여 규모를 나타내지만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영 토지면적.....경영지총면적, 농용지

면적(農用地面積), 경지면적

- ② 상비노동력(常備勞動力)……상근종사자수, 가족경영에서는 기간(基幹)종사자수
- ③ 사양가축수
- ④ 투자자본의 크기
- ⑤ 연간총비용액
- ⑥ 경영연간산출액……조생산액(粗生産額), 조소득액(粗所得額)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경영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다. 오직 전문적으로 축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영규모는 가축의 사양두수에 따라 규모를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때 사료를 모두 구입사료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더욱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를 자급하는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경영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때 경영규모를 말할 경우에는 이것을 합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경종을 하는 복합경영의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축산경영의 규모확대라는 점을 생각할때 이것은 단순히 가축사육두수 규모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축산경영에 있어서 생산력의 향상을 뜻하며 경영소득(또는 기업이윤)의 증대, 노동소득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는 자본규모의 확대와 생산조직의 개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축산경영에 있어서 생산력의 발전 단계라는 관점에서 자본의 규모를 볼 경우 축산경영의 자본장비로서의 가축, 건물, 기계, 시설, 토지 등 전체의 자산을 총액으로 취급한 자본의 집약도(集約度)를 보지 않을수 없으며 자산의 총액에 대응하여 나타난 조수익, 소득액의 증대를 고려하여 경영규모를 규정하여야 한다.

## 2. 규모의 경제와 적정규모

### 가. 규모의 경제

축산경영규모를 확대하였을 경우에 확대하기 전보다도 비례적으로 소득이나 이윤 또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즉 규모확대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체증현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규모(規模)의 경제(經濟)라고 한다.

축산경영에 있어서는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 즉 투자된 시설이나 고용인력을 최대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양규모 확대의 경우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인데 반하여 몇마리의 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고정시설을 확충하고 새로 고용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불리한 규모확대의 실례가 될 것이다.

규모의 확대는 전체 생산요소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바 자기경영의 여건을 감안하여 규모확대의 유리한 조건을 항상 분석하여야 한다.

### 나. 적정규모

축산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요소의 합리적 조직이 요구되며 경영방식의 선택, 노동력구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자본의 집약성, 집약도가 높아질수록 수익과 비용의 차가 적어지며 수익증가 점감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그 이전에 적정한 규모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적정규모는 단기적으로는 조업도의 변화에 의하여 수확체감, 체증의 법칙이 작용함으로써 생기며, 또 장기적으로도 이 법칙이 작용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축산경영관리상 이와같은 적정규모의 존재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더욱 그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방책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중요

하다. 이 방법에서는 생산물 단위당 이윤함수와 비용함수를 통하여 적정규모를 판정한다.

규모의 경제성을 통계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상이한 규모층간의 단위생산비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경영자본수익성의 상대적 비교, 생산함수의 규모의 경제성계수 추정치, 규모별 농가호수의 구성비의 장기적 변화를 분석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판정되는 적정규모란 절대적 의미에서의 최대효율규모가 아니라 여타 규모와 비교되는 이른바 상대적 의미에서의 효율규모이기 때문에 적정목표이익 즉 적정소득이나 적정이윤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적정규모는 모든 경영자에게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축산경영자의 조건과 가격관계 등 제반여건에 따라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규모수준이 모든 경영자에게 어느때나 적정규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의 경영요소 소유조건에 따라 각각 적정규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3. 대규모경영의 유리성 및 전제조건

일반적으로 대규모경영이 소규모경영에 비하여 생산성(生産性), 수익성(收益性)이 높아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상공업에서는 인정되었지만 농업이나 축산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어느 쪽이 유리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소규모우월론은 인구수용력(人口收容力), 사회적생존력 등 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경영론(經營論)에서 소규모 경영이 유리하다고 한 경우는 소규모경영은 가족노동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양축(養畜) 특히 번식육성(繁殖育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경영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경영이론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경영이 소규모 경영보

다 유리한 경향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생산상의 유리성

1) 능률적인 기계설비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인당 관리두수를 늘릴 수 있어 노임이 절약되고 또 생산량이 증대되어 생산비가 생산단위에 분산되어 생산비가 절감된다. 즉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향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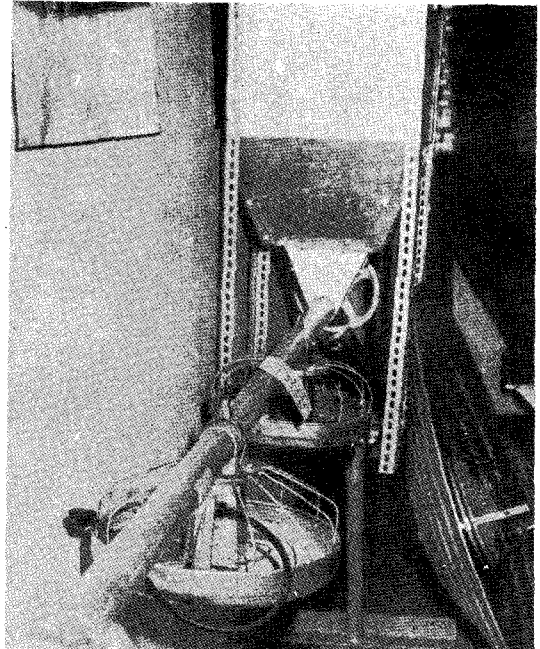
2) 분업(分業) 협업(協業)에 의해 노동조직이 합리화되어 종업원의 전문적기술 습득과 책임분담제에 의하여 노동능률이 향상되어 노임이 상대적으로 경감된다.

3) 축사 등 건물비가 가축 1두당 적게 먹힌다.

4) 고정비뿐만 아니라 사료비 등 변동비도 쓸데없는 낭비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절약된다.

#### 나. 유통 및 신용상의 유리성

1) 축산물의 판매 및 생산자재 구입에 있어



대량거래(mass transaction)의 이점과 함께 경영이 전문화되면 품질, 규격의 통일이 용이하다.

2) 대량거래는 거래자(去來者)로서의 경영자의 지위와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3) 금융면(金融面)에서는 대외적 신용력이 커져서 자금조달면에서 유리하다.

이상에서 대규모경영의 유리성을 설명하였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대규모경영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축산의 대규모경영의 유리성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 A. 기술적 조건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축산의 대규모경영의 유리성의 가장 큰 요인은 노동능률 즉 노동절약기술 향상이다. 그러나 가축단위 당 생산 즉 증수기술(增收技術)의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익성은 높아지지 않는다. 노동절약기술로는 작업동작의 표준화(능률적인 작업을 연구해서 누구나 쉽게 숙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간략화(생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필요없는 것을 생략하는 것), 분업화 그리고 기계시설의 개발도입이다.

또 증수기술(增收技術)에는 사료의 효율적 이용, 분만가격의 단축, 분만자축의 증가(養豚), 산유능력, 산육능력(產肉能力)·산란능력의 향상, 인공수정 등 여러종류가 있다.

대규모사양에는 이상의 두가지 기술이 하나가 되어 대규모사양기술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종래의 개체관리에서 군관리(群管理)로 진행됨에 따라 가축개체의 자질(資質)의 균일화가 요구된다. 또 신품종의 도입, 교배잡종도 필요하다. 사료도 균일화되어야 하며 배합사료에 대한 의존율이 높게 된다.

가축은 공업생산의 기계처럼 무생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축의 습성, 생리적 특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규모사양은 기술체계의 발달에 의해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사료비

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가축의 사고율이 높아질 염려가 있어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므로 그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사양규모의 확대는 그것에 상응해서 기술수준이 질적으로 높아야 비로소 유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기술질(技術質)이 변하여, 말하자면 소규모기술이 대규모기술로 되어 소규모경영에서는 도입될 수 없었던 기술이 도입되어 생산성 수익성이 모두 높아지는 경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모를 확대하여도 기술수준이 이에 동반하지 못하면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B. 자본적 조건

대규모경영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유리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본관계에서 크게 좌우된다. 우선 대규모기술의 도입에는 건물(축사 등), 기계시설을 하기위한 자본이 필요한데 가축 1두당 고정자본 부담이 너무 커서 과잉투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차입자본에 의한 경우에는 더욱 어렵게 된다. 차입자본은 물론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우에도 고정자산이 많으면 감가상각비가 커지고 유동자산 특히 운전자본 등 자금유동을 압박하여 사료구입, 자급사료생산을 위한 비료대 등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성, 수익향상을 막는 요인이 된다.

#### C. 경영능력

축산의 대규모경영이 경영조건에 맞게 많은 자본을 적정하게 운용하여 높은 생산성을 올리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유리하게 생산물의 판매·사료의 구입을 하여 대규모경영의 유리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려면 여기에 상응하는 경영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규모확대의 유리성에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제약요인으로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을 명심해야 한다.

#### 4. 축산경영규모의 수익성

축산업협동조합의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다  
1983년도의 축종별, 규모별 수익성의 내용을 음과 같다.

##### 가. 유우(乳牛)

###### ○유우 수익성

(단위 : 원)

구분 \ 사육규모	1~9두	10~14두	15두 이상	평균
조수입 (A)	2,320,841	2,308,919	2,300,655	2,311,763
경영비 (B)	1,171,223	1,245,703	1,292,375	1,226,748
비용합계 (C)	1,838,594	1,680,600	1,672,363	1,742,294
소득(A-B)	1,149,618	1,063,216	1,008,380	1,085,015
순수익(A-C)	482,247	628,319	628,292	569,469

##### 나. 비육우

###### ○비육우 수익성

(단위 : 원)

구분 \ 사육규모	단기 비육			장기 비육				평균
	1~5두미	5두이상	평균	1~5두미	5~9	9두이상	평균	
조수입 (A)	1,697,073	1,850,508	1,809,276	1,714,650	1,754,005	1,658,315	1,696,767	1,759,969
경영비 (B)	1,548,170	1,718,932	1,673,033	1,490,198	1,493,486	1,443,155	1,468,155	1,583,344
비용합계 (C)	1,673,824	1,817,223	1,778,575	1,700,039	1,634,439	1,584,214	1,631,653	1,715,727
소득(A-B)	148,903	131,576	136,243	224,452	260,519	215,160	228,612	176,725
순수익(A-C)	23,249	33,285	30,701	14,611	119,566	74,101	65,114	44,242

주: 회전당 수익성임

##### 다. 비육돈

###### 비육돈 수익성

(단위 : 원)

구분 \ 사육규모	50두미만	50~100	100두이상	평균
조수입 (A)	121,114	117,262	114,306	115,514
경영비 (B)	105,380	100,216	98,354	100,913
비용합계 (C)	122,924	109,456	104,791	111,462
소득(A-B)	15,734	17,046	15,952	14,601
순수익(A-C)	△ 1,810	7,806	9,515	4,052

주: 회전당 수익성임.

라. 육 계

육계 수익성 ○

(단위 : 원)

구 분 \ 사육규모	5,000수미만	5,000~7,000	7,000수이상	평 균
조 수 입 (A)	16,211	16,502	16,298	16,300
경 영 비 (B)	16,619	16,272	15,057	16,198
비 용 합 계 (C)	18,414	17,462	15,979	17,653
소 득(A-B)	△ 408	230	1,241	102
순수익(A-C)	△ 2,203	△ 960	319	△ 1,353

주 : 회전당 수익성임.

마. 산란계

○산란계 수익성

(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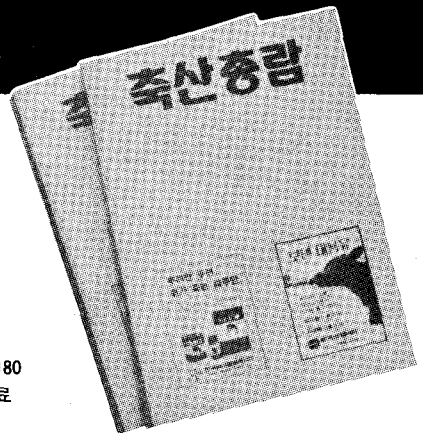
구 분 \ 사육규모	2,000수미만	2,000~5,000	5,000수이상	평 균
조 수 입 (A)	15,706	13,815	12,635	13,590
경 영 비 (B)	11,873	11,859	11,912	11,887
비 용 합 계 (C)	13,136	12,638	12,244	12,552
소 득(A-B)	3,833	1,956	723	1,703
순수익(A-C)	2,570	1,177	391	1,038

## 전국축산인의 현주소

전국 방방곡곡에 널려있는 양축가 주소는  
물론 축산의 연관산업 주소까지  
총망라된 “축산총람”이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가격 25,000원**

구독방법 우체국에서 소액환 또는 대체구좌 013086-31-2632180  
번호로 저희 잡지사에 구독료를 송금하시면 본지 송료  
부담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月刊 종합 축산**

서울 강남구서초동12-7(삼흥빌딩502호)  
☎ 555-4556(대), 2316, 7560